

# 고등학생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최건아\*

## <차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 2. 쓰기 효능감과 관련된 요인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IV. 결과 분석
- V. 결론

## I. 서론

과거로부터 작문 연구에서는 필자의 쓰기 수행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쓰기 수행을 뒷받침하는 쓰기 능력에 주목하였고 그 구인 및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련의 지식을 잘 습득하는 것이 쓰기 능력을 담보한다고 본 입장에서는 쓰기 관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에 초점을 두기

\* 신라대학교 강사(nickswings@hanmail.net)

도 하였다. 그런데 구성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 및 지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비록 인지적인 쓰기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드러내어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낫은 자존감 때문에 쓰기 학습 전반에 어려움을 겪어 결론적으로 쓰기 능력이 낫은 학생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학생들이 작문을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은 필자의 정의적 영역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쓰기 능력은 인지적 측면 외의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필자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등장한 쓰기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태도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필자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다. 그런데 쓰기의 정의적 영역에서는 쓰기 자체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라는 태도의 차원 외에 쓰기를 하는 필자 자신의 자신감, 자기 개념의 차원에서 '쓰기 효능감'이라는 신념 체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효능감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취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쓰기는 명제적, 개념적 지식뿐 아니라 수행적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실천적 영역이므로 '잘 쓸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는 실제 쓰기 수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수준 및 효능감과 다른 요인과의 관련을 다룬 연구 성과는 충분치 않으며 더욱이 성인기로의 진입을 앞둔 고등학생 시기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1곳의 1학년 남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수준을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참여자들이 쓴 글 점수와 쓰기 효능감의 상관, 글 점수와 쓰기 결과 기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영향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까닭은, 첫째, 각 요인들 간에 영향 관계 및 함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일방향이 아니라 복잡한 양상을 지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 먼저 정적 상관의 여부를

분석한 뒤에 후속 연구에서는 상관을 넘어 구체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것 이 순서 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사회 인지주의자 Bandura는 인간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술을 적용, 통합하는 생산적인 구조로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Shell 외, 1989). Bandura(1982)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은 인간이 기울이는 노력의 양, 부정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의 정도를 결정하는 자기 신념 체계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는 성공 경험(enactive attainment),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 상태(physiological state)의 네 요소가 연관되는데, 개인의 인지적 사고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 관찰을 통한 학습 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학습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목표 설정, 향상심, 결과 기대, 정서적 기질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Bandura, 1986). 때문에 교육에 있어 인간의 자기 효능감은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기 효능감 또는 학문적 자기 개념은 영역을 불문하고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ajares와 Valiante, 1999). 쓰기 영역에서는 쓰기 기술에 대한 학생 자신의 평가 또는 다양한 유형의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및 작문 기술을 구사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쓰기 효능감(writing self-efficacy)’이라고 일컫는다(McCarthy 외, 1985;

Pajares와 Johnson, 1993). 실제 쓰기 수행 수준과는 별개로 필자 자신이 스스로 ‘나는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쓰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의 쓰기 효능감과 일반적인 쓰기 기술을 구사할 때의 효능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근래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연구 관심이 고조되면서 읽기 태도, 쓰기 태도 등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장선상에서 쓰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효능감과 나란히 언급되는 개념으로 ‘결과 기대(outcome expectancy)’가 있다. 효능감이 주어진 유형의 수행을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인데 반하여, 결과 기대는 그러한 수행으로부터 비롯될 결과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 기대는 효능감과 구별된다(Bandura, 2006).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는 필자의 신념 체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간 상관이 낮은 것으로 밝힌 Pajares와 Johnson (1993)에서와 같이 개별 학습자에게 있어 두 개념은 반드시 정적 상관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우며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Bandura(1986)에 따르면 결과 기대는 긍정적, 부정적인 생리적 결과 기대, 사회적 결과 기대, 자기 평가적 결과 기대의 유형을 지니는데, 각 유형에서 긍정적 기대는 긍정적 자극원이 되고 반대로 부정적 기대는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잡한 인지적 과제로서 쓰기 수행은 필연적으로 효능감뿐 아니라 결과 기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며 쓰기에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관련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Shell 외, 1989). 더욱이 결과 기대는 효능감보다도 근자에 주목받은 개념으로 쓰기 결과 기대의 발달 혹은 결과 기대와 쓰기 수행간의 관련을 살핀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학습자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 살피고 이 신념 체계들이 다른 요인들과 맺는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쓰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중요성 정도를 이해하고, 쓰기 교육에서의 제안 사항까지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쓰기 효능감과 관련된 요인

쓰기 효능감은 다른 영역에서의 효능감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지만, 학생의 쓰기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쓰기 효능감은 그 자체의 발달적 양상을 살피는 방법과 더불어 성차, 학년 차,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른 쓰기 효능감의 차이를 살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또한 김종백, 우은실(2005), 박영민 외(2006)에서와 같이 쓰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가능하다.

먼저 학년 또는 나이 별 쓰기 효능감의 발달 수준을 살핀 연구들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전 학년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발달을 분석한 박영민, 최숙기(2009)에서는 전반적으로 초·중학생 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생 시기에 이르러 효능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은 바 있다. 연구에서는 쓰기 효능감이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쓰기 효능감 발달을 연구한 가은아(2010)에서는 쓰기 효능감이 6학년에서 9학년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낮아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시기에 쓰기 효능감이 감소했다가 고등학생 때에 다시 상승한다는 점에서 Valiante(200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지만, 박영민, 최숙기(2009)와는 상치된다. 이 같은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대체적으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쓰기 효능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학년에 따른 효능감 발달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효능감이 아닌 쓰기 결과 기대의 발달적 패턴을 살핀 Shell 외(1995)에서는 7, 10학년 사이에 쓰기 결과 기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음으로 쓰기 효능감은 ‘쓰기 수행’ 및 ‘쓰기 능력’, ‘쓰기 성취’라는 요소와 자주 관련된다. 현재까지 쓰기 효능감과 수행 간의 상관 혹은 영

향 관계를 살펴 연구 성과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쓰기 효능감과 수행은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이 이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Pajares와 Johnson, 1993; McCarthy 외, 1985). 또한 쓰기 효능감은 쓰기 결과 기대보다 쓰기 수행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hell 외, 1989; McCarthy 외, 1985). 구체적 연구 사례를 살펴보자면, 4, 7, 10학년을 대상으로 한 Shell 외(1995)에서는 모든 학년에 걸쳐 쓰기 성취 수준이 우수한 집단은 쓰기 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김승희(2007)에서는 쓰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텍스트 질과 낮은 집단의 텍스트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쓰기 효능감과 수행 간 상관을 뒷받침하였다. 그렇지만 Shell 외(1989), Shell 외(1995)에서와 같이 읽기에 비해 쓰기는 효능감과 수행 간 관련이 비교적 덜 명확한 편으로, 쓰기 효능감과 쓰기 수행이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쓰기 효능감은 성별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쓰기 능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선행 연구들의 영향으로 쓰기 효능감 역시 여학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쓰기 효능감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대상 학년, 연구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영민, 최숙기(2009)에서는 초등 학생 시기에는 여학생이 고등학생 시기에는 남학생의 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Pajares(1996, 199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쓰기 효능감의 뚜렷한 성차가 없다고 한 Shell 외(1995), Pajares 외(1999), Pajares와 Valiante(1999)에서의 결과와는 상반된다.<sup>1)</sup>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민, 김승희(2007)에서는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만이 쓰기 효능감 수준에 따른 텍스트의 질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성별 요인과 쓰기 효능감의 관련에 관심을 두었지만, 쓰기 효능감의 성차를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효능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는 더 많은

1) 각각의 연구는 4, 7, 10학년, 3, 4, 5학년, 6, 7, 8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충분한 데이터의 집적 후에는 후속 연구에서 쓰기 효능감 및 결과 기대와 관련된 교수 모형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부산 소재 J고등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학교로 2010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자동차 분야의 기능인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졸업 후 학생들은 여러 자동차 전문 기업에 취직한다. 2010년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마이스터 1기 학생들로 중학교 평균 내신이 50퍼센트 가량이며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수준은 평균 6등급이다. 이들 중 90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은 2010년 1년 동안 자동차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2개씩 취득한 상황이다. 2010년 10월 말에 있었던 입학 원서접수에서는 120명 모집에 646명이 지원해 5.3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J고등학교에 2010년에 입학한 이들 1학년 학생 120명 중 결시자 9명을 제하고 1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모두 남학생이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에서는 2011년 2월 둘째 주 중에 결시자를 제외한 1학년 전체 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먼저 쓰기 효능감, 쓰기 결과 기대를 측정하고, 이어 학생들의 글 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측정에서는 Shell 외(1989)에서 제안한 쓰기 효능감 측정 문항과 쓰기 결과 기대 측정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쓰기 효능감 측정 문항은 편지 쓰기, 이력서 쓰기, 시험 답안 쓰기, 시 쓰기 등 특정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의 효능감과 관련된 16개 문항과 문 법에 맞게 쓸 수 있는지, 짜임새 있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쓰기 기술 관련 문항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Bandura(2006)에서 제안한 척도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자신감을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표기하게 하였다. 쓰기 결과 기대 측정에서는 글을 잘 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7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여, 취업, 인간관계, 학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쓰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살폈다. Shell(1989)의 쓰기 효능감 측정 문항에 포함된 과제 관련 하위 항목들의 Cronbach 알파 계수는 .92, 쓰기 기술 관련 하위 항목들은 .95로 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았다. 쓰기 결과 기대 항목들의 Cronbach 알파 계수 역시 .93으로 높아, 도구의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의 구체적 예는 부록에 제시된 바와 같다.

쓰기 과제에서는 되도록 특정 주제에 관련된 선행 지식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관심 및 흥미, 자동차 기술을 중시하는 고등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제시하였다.

#### <쓰기 과제>

내가 잘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것(물건, 장소 또는 사람), 혹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특별히 쓰기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한 시간 이내에 글쓰기를 마쳤다. 학생들의 글은 서울 소재 공립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3년차 경력의 국어 교사와 연구자가 각각 평가하였다. 두 평가자는 내용, 조직, 표현 측면에 균형 있게 접근하여 5점 만점으로 총체적 평가할 것을 사전에 논의하였으며, SPSS로 분석한 평가자 간 신뢰도는 .76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모든 자료 수합을 마친 후 학생들의 글 점수와 쓰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글 점수와 쓰기 결과 기대의 상관관계,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의 상관관계를 SPSS 18.0 버전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IV. 결과 분석

학생들의 글을 평가한 결과, 전체 111명의 글 점수 평균은 3.51점, 표준편차는 .89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선택한 쓰기 주제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 종목, 컴퓨터 게임, 자동차 관련 정보, 재학 중인 학교, 거주 지역 특성 등으로 다양했다. 쓰기 과제 수행에서는 물론 쓰기 효능감, 쓰기 결과 기대 문항의 응답에서 의미 없는 값을 기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 바, 111명의 자료는 모두 분석 대상이 되었다.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쓰기 효능감 평균

쓰기 효능감	쓰기 과제 효능감	문항 번호	평균
		1	67.84
		2	63.42
		3	31.89
		4	46.40
		5	45.72
		6	58.83
		7	58.65
		8	35.90
		9	32.93
		10	49.37
		11	50.41
		12	43.92

		문항 번호	평균
쓰기 효능감	쓰기 과제 효능감	13	64.68
		14	33.56
		15	54.32
		16	67.16
		쓰기 과제 효능감 문항 전체 평균(표준편차)	50.31(14.48)
	쓰기 기술 효능감	1	65.77
		2	57.12
		3	53.11
		4	53.51
		5	42.61
		6	48.83
		7	50.86
		8	53.33
		쓰기 기술 효능감 문항 전체 평균(표준편차)	53.14(15.76)
	쓰기 효능감 문항 전체 평균(표준편차)	51.73(13.30)	

분석 결과, 쓰기 효능감의 평균은 51.73으로 드러났다. 효능감을 100 점 척도로 표시하게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쓰기 효능감은 다시 쓰기 과제 효능감과 쓰기 기술 효능감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평균은 50.31, 53.14이다. 일반적인 쓰기 기술을 구사할 때의 자신감이 특정한 유형의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의 자신감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과제 효능감과 기술 효능감 간의 차이 여부를  $t$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2.05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쓰기 과제 효능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1번은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쓰기’, 16번은 ‘수업 내용을 필기하여 정리하기’인데, 이 항목들에서 참여자들이 높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평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쓰기 유형으로 전문 지식이나 규범이 크게 적용하지 않는 과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3번 ‘공문서 작성하기’와 9번 ‘일정 분량의 보고서 쓰기’에서 가장 낮은 효능감을 보인 것은, 이 같은 유형의 쓰기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공문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효능감이 가장 높은 항목에 대한 응답 수치와 가장 낮은 항목에 대한 응답 수치는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여, 과제 유형에 따른 효능감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쓰기 결과 기대 평균

문항 번호	평균
1	6.32
2	5.83
3	5.09
4	4.55
5	4.13
6	4.35
7	3.91
8	5.26
9	4.63
10	4.21
11	4.87
12	4.42
13	4.82
14	4.26
15	4.88
16	6.24
17	5.28
18	4.94
19	5.29
20	5.80
문항 전체 평균(표준편차)	4.95(0.79)

분석 결과, 쓰기 결과 기대의 평균은 4.95인 것으로 드러났다. 7점 척도에서 약 5점의 값이므로 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살핀 효능감 분석 결과와 견주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목표 실현에 있어 쓰기는 중요한 편인데, 나의 쓰기 수행 수준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쓰기 효능감과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쓰기 효능감과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

쓰기 효능감과 글 점수 간의 상관	Pearson 상관계수	.321**
	유의확률(양쪽)	.00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쓰기 과제 효능감과 글 점수 간의 상관	Pearson 상관계수	.330**
	유의확률(양쪽)	.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쓰기 기술 효능감과 글 점수 간의 상관	Pearson 상관계수	.238*
	유의확률(양쪽)	.012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먼저 쓰기 효능감과 글 점수 간에는 .321의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한 정적 상관이지만, 상관계수 .40 이상에서 ‘상관이 있다’, .60 이상에서 ‘상관이 높다’라고 하는 보통의 언어적 표현에 비추어 보면, .321의 수치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편이다’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과제’ 효능감과 ‘기술’ 효능감 중에서는 과제 효능감이 글 점수와 더 높은 상관이 있다.

반면 쓰기 결과 기대와 글 점수 간의 상관 분석에서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5보다 큰 .1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관계수가 .131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글 점

수가 쓰기 결과 기대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의 상관 분석에서는 유의확률(양쪽)이 .041, 상관계수가 .194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표 4〉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간의 상관관계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간의 상관	Pearson 상관계수	.194*
	유의확률(양쪽)	.041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이 같은 결과는 첫째, Shell 외(1989), McCarthy 외(1985)에서와 같이 쓰기 결과 기대보다 쓰기 효능감이 쓰기 수행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점을 증명하며, 둘째, 쓰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며 서로 간의 상관이 낮다는 Bandura(2006) 및 Pajares와 Johnson(1993)과 맥을 같다.

위와 같이 분석한 글 점수, 쓰기 효능감, 쓰기 결과 기대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쓰기에 대한 참여자들의 자신감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이에 비해 쓰기 결과에 대한 기대는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효능감 측정에서 쓰기 기술 효능감은 53.14로 쓰기 과제 효능감 50.31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제 또는 장르의 글쓰기를 다소 어려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문서 작성하기와 보고서 쓰기에서 효능감이 낮게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특정한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 유형에서 효능감이 더욱 낮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효능감 수준이 높지 않은 것에 비해 결과 기대 수치는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참여자들이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쓰기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습자들의 쓰기 효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쓰기 효능감과 글 점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쓰기 기술 효능감보다 쓰기 과제 효능감과 글 점수 간의 상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과제 효능감이 기술 효능감보다 더 낮은 데 글 점수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과제 효능감이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러 쓰기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관 분석의 결과는 쓰기 수행에 있어 쓰기 효능감이 갖는 효용성을 살펴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상관계수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 간의 상관을 밝힌 것이므로 이를 선별리 인과 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셋째, 쓰기 결과 기대는 글 수준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확률이 높고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쓰기 효능감과 글 수준 간의 상관 역시 높지 않은 점과 연관시켜 보면, 참여 학생들의 경우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에 관련한 교육적 경험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상 남자 고등학생들은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쓰는 경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쓰기 능력이나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치상으로 밝혀낸 상관계수가 높지 않음은 오히려 학습 필자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효능감 및 결과 기대 외에 학습자의 쓰기 수행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가 매우 낮은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로써 두 요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미약하게나마 정적 상관을 갖고 있고 둘 모두 필자의 신념 체계라는 점에 근거할 때,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특성 및 관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쓰기 효능감은 쓰기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필자의 자기 신념 체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효능감과 ‘기술’ 효능감으로 나뉜 효능감이 글 점수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쓰기 효능감과 같이 필자의 신념 체계에 속하는 쓰기 결과 기대를 측정하여 글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쓰기 효능감이 글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쓰기 결과 기대가 글 점수와 거의 상관이 없다는 점은 쓰기 결과 기대에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들의 효능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쓰기 교육, 특히 효능감과 관련된 정의적 측면의 교육을 더욱 북돋울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의 해석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요구된다. 첫째, 참여자들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부산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모두 남학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의 차이나 성차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쓰기 결과 기대와 글 점수 간의 상관이 미미하지만 이는 쓰기 결과 기대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 및 교육 방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쓰기 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하거나 필자로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 평가해 볼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면 쓰기와 관련한 정의적 영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의 분석 결과 및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필자들의 쓰기 효능감 및 결과 기대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효능감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 본 논문은 2011. 2. 28. 투고되었으며, 2011.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가은아(2010), “쓰기 태도 및 쓰기 효능감 발달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국어교육학회, 159~183.
- 김종백, 우은실(2005), “자기평가 중심 학습이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9집, 한국교육심리학회, 205~221.
- 박영민, 김승희(2007), “쓰기 효능감 및 성별 차이가 중학생의 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327~359.
- 박영민, 김종백, 우은실(2006), “반성적 쓰기 활동이 학생필자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제12집, 안암교육학회, 87~102.
- 박영민, 최숙기(2009),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발달 연구”, 『새국어교육』 제8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95~125.
- 성태제(2007),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교육과학사.
- Bandura, A.(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Greenwich, Conn.: IAP-Information Age Pub.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cCarthy, P., Meier, S., & Rinderer, R.(1985), Self-efficacy and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6: 465~471.
- Pajares, F. & Johnson, M. J.(1994), Confidence and competence in writing: The role of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and apprehension,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28(3): 313~331.
- Pajares, F., Miller, M. D., & Johnson, M. J.(1999), Gender differences in writing self-belief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1): 50~61.
- Pajares, F. & Valiante, G.(1999), Grade level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writing self-beliefs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4: 390~405.
- Pajares, F.(1997),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elementary students' writ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0(6): 353~360.
- Pajares, F.(1996), Self-efficacy beliefs and the writing performance of entering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3, 163~175.
- Shell, D. F., Colvin, C., & Bruning, R. H.(1995), Self-efficacy, attribution, and outcome

- expectancy mechanism in reading and writing achievement: Grade level and achievement-level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3): 386~398.
- Shell, D. F., Murphy, C. C., & Bruning, R. H. (1989),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mechanism in reading and writing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1): 91~100.
- Valiante, G.(2001), Writing self-efficacy and gender orient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issertation, Atlanta: Emory University.

〈초록〉

## 고등학생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최건아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부산 소재 남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SPSS 18.0 버전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참여자들의 쓰기 효능감은 중간 수준이며 이에 비교적 쓰기 결과 기대는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쓰기 과제 효능감은 쓰기 기술 효능감 보다 낮았다. 둘째, 쓰기 효능감과 글 점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쓰기 과제 효능감과 글 점수의 상관이 쓰기 기술 효능감과 글 점수 간 상관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크지는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쓰기 결과 기대는 글 점수와 거의 상관이 없었다. 넷째,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간의 상관이 매우 낮았다.

이상의 분석은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글 점수 간의 상관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남학생만을 참여 대상자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핵심어】 쓰기 효능감, 쓰기 결과 기대, 고등학생, 쓰기 교육, 상관관계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Writing Self-efficacy, Writing Outcome Expectancy and Writing Score

Choi, Gun-a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writing self-efficacy, writing outcome expectancy and writing score. Data was collected from high school first graders in Busan in February 2011. Researcher analyzed the correlation using the SPSS 18.0 version.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participants' writing self-efficacy was moderate and writing outcome expectancy was relatively high. Writing self-efficacy about task was lower than writing self-efficacy about component skill. Second, there was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riting self-efficacy and writing score. Especially, the correlation between writing self-efficacy about task and writing score was higher than the correlation between writing self-efficacy about component skill and writing score. However, it has to be interpreted carefully becaus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not big. Third, there was almost no correlation between writing outcome expectancy and writing score. Fourth, correlation between writing self-efficacy and writing outcome expectancy was very low.

This result is meaningful because of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writing self-efficacy, writing outcome expectancy and writing score. But the result has to be interpreted carefully considering this study's limitation that all participants were specialized high school's

male students.

【Key words】 Writing self-efficacy, writing outcome expectancy, high school students, writing education, correlation

## 【부록】

##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측정 설문-

## ■ 쓰기 효능감

A와 B에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내가 가진 ‘자신감’을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세요.

〈참고〉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할 수 없다.					보통 정도로				매우 잘 할 수 있다.	

A.

	자신감 (0 ~ 100)
1.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또는 이메일)를 쓸 수 있다.	
2. 카드 게임(또는 인터넷 게임)하는 방법을 글로 설명할 수 있다.	
3. 법적 효력을 갖는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보험 약관의 빈 칸을 작성할 수 있다.	
5. 사무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6.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을 포함해 내가 일한 경력, 내가 가진 기술을 드러내는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다.	
7.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두 문장 정도로 쓸 수 있다.	
8. 시험 문제에 대해 답을 한 두 페이지 가량의 글로 작성할 수 있다.	
9. 15~20쪽 정도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10.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 잡지에 실을 만한 전문적인 내용의 기사를 쓸 수 있다.	
11. 신문사의 편집장에게 (독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쓸 수 있다.	
12.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대중적인 잡지에 실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다.	
13. 짧은 이야기(상상하거나 꾸며 쓴 글)를 쓸 수 있다.	
14. 400쪽 분량의 소설을 쓸 수 있다.	
15. 내가 선택한 자유 주제로 시를 쓸 수 있다.	
16. 수업 내용을 펼기하여 정리할 수 있다.	

B.

	자신감 (0 ~ 100)
1. 한 쪽 분량의 글을 쓸 때 모든 글자를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다.	
2. 한 쪽 분량의 글을 쓸 때 쉼표와 마침표를 바르게 표시할 수 있다.	
3. 문장 내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	
4. 한 문장을 쓸 때, 쉼표, 마침표를 바르게 표시하며,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다.	
5. 접두사 및 접미사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6. 복잡하게 결합된 형식의 문장을 쓸 때 쉼표, 마침표를 바르게 표시하며,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다.	
7. 한 문단 내에서 여러 문장을 짜임새 있게 써서 글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8. 글의 전체적 구조를 잘 짜서 쓸 수 있다. (예: 주요 내용들의 순서 잘 배열하기)	

### ■ 쓰기 결과 기대

잘 쓰는 능력은 장차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제시된 20개의 항목에 대해 1에서 7 사이의 숫자로 응답해 보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큰 숫자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잘 쓴다면, 취업

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첫 번째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7,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을 쓰면 됩니다.

〈참고〉

7	6	5	4	3	2	1
매우 그렇다고 생각함	...	...	보통이라고 생각함	...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글을 잘 쓴다면, (그 결과…)	응답 (1 ~ 7)
1.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직장에서 일을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4.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5. 이성친구와 테이트할 수 있을 것이다.	
6.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7. 장차 결혼 상대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9.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10.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11.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12.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내가 민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14.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15.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6. 다른 이들에게 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7.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8. 진학 및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20.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